

2023년 5월 15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 KIWOOM WEEKLY

## KIWOOM WEEKLY

### 증시의 진폭만 키우는 부채한도 노이즈

한국 증시는 1) 미국 부채한도 협상, 2) 미국과 중국의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 실물 경제지표, 3) 주요 연준 인사들 발언, 4) 1분기 실적 시즌 종료 이후의 추정치 변화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중립 수준의 주가흐름을 보일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440~2,540pt).

주중 시장이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미국의 4월 소매판매(컨센 +0.7%, 3월 -0.6%), 산업생산(컨센 +0.0%, 3월 -0.3%) 등 실물 경제 지표와 경기 가능자 역할을 하는 월마트의 실적이 될 것. 현재 시장은 연준 긴축 사이클 종료 여부를 넘어서 긴축 이후의 부작용 정도(침체 등)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상태이기에, 해당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올 시에는 부정적인 주가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 중국의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 이들의 실물 경제 지표 결과도 국내 외국인 수급에 유의미한 변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



**Strategist 한지영**  
02) 3787-5241  
hedge0301@kiwoom.com



**Market 김지연**  
02) 3787-3761  
jeehyun.12@kiwoom.com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5월 12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코스피는 4월 CPI 경계심리, 미국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 모멘텀 부재 및 이차전지 업종 약세 등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며 하락 마감 (KOSPI -1.02%, KOSDAQ -2.68%)

8일(월) 국내 증시는 연휴 기간 중 미 증시 호재(고용 호조, 애플 호실적 등)를 반영하며 상승 출발했으나, 이후 2차전지, 엔터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성 물량이 출회된 영향 등으로 전강 후약 장세로 마감. 이후 주 중반에는 미국 4월 CPI 경계심리가 유입되며 상단이 제한된 가운데, 중국의 4월 수입 부진(-7.9%YoY, 컨센 -0.2%),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 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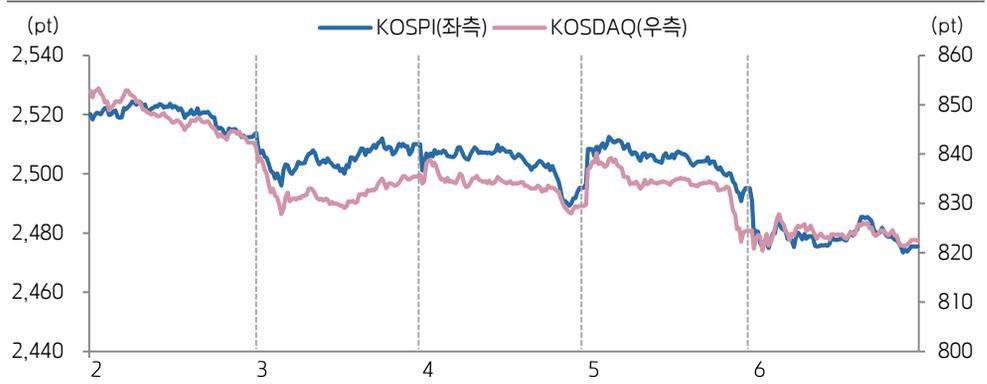
미국 4월 CPI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 헤드라인 전년대비 4.9%(예상 5.0%, 전월 5.0%), 전월대비 0.4%(예상 0.4%, 전월 0.1%) 기록. 근원CPI는 전년대비 5.5%(예상 5.5%, 전월 5.6%), 전월대비 0.4%(예상 0.4%, 전월 0.4%) 기록하며 컨센서스 부합. 파월 연준 의장이 주시하는 슈퍼코어 서비스(근원 서비스-주택)도 전년동기 대비 5.8%에서 5.1%로 둔화. 에너지, 중고차 부문이 재차 상승하며 상품부문 상승세를 주도했지만, 주거비, 운송비, 의료비 등 서비스 부문에서 하락 추세 확인.

그러나 CPI 민감도는 약화된 가운데 11일(목) 국내 증시는 나스닥 강세로 성장주 및 테마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 보였으나, 장후반 이차전지 업종 개별 이슈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며 하락 전환. 12일(금) 역시 미 실업수당 청구건수 예상치 상회 및 PPI 예상치 하회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장중 미 부채한도 협상 연기 보도 등으로 뚜렷한 방향성 부재한 채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

업종별로 통신업(+3.71%), 운수장비(+3.26%), 증권(+2.81%), 전기가스업(+1.72%), 서비스업(+0.65%)업종은 강세, 의료정밀(-6.42%), 종이목재(-3.87%), 섬유 의복(-3.43%), 철강금속(-3.36%), 비금속광물(-2.96%). 호실적 발표한 통신, 자동차 부품, 엔터, 소외 업종이었던 건설, 인터넷, 은행 업종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이차전지 업종의 경우 4월 말 신용 이슈로 인한 코스닥 조정, 엘앤에프 실적 부진 이후 투자심리 악화되며 조정.

외인(+2,348억원)은 서비스업(+2,064억원), 운수장비(+2,052억원), 건설업(+436억원), 보험(+284억원) 중심으로 순매수, 기관(+3,800억원)은 운수장비(+1,788억원), 서비스업(+1,256억원), 금융업(+1,255억원), 통신업(+785억원) 중심으로 순매수.

###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5월 15일	월	미국	뉴욕 제조업지수	5월	-4	10.8
		EU	산업생산 MoM	3월	-1.3%	1.5%
	발언	애틀란타 연은, 미네폴리스 연은				
	실적	미쓰비시 넥센타이어, JYP Ent., 디어유, 대웅제약, 셀트리온헬스케어, 종근당, 알테오젠				
5월 16일	화	미국	소매판매 MoM	4월	0.7%	-0.6%
			소매판매_자동차,가스제외 MoM	4월	0.2%	-0.6%
			산업생산 MoM	4월	0.0%	-0.3%
			기업재고 MoM	3월	0.0%	0.2%
			NAHB 주택시장지수	5월	45	45
		EU	ZEW 경제전망	5월	-	6.4
			GDP QoQ 잠정치	1분기	0.1%	-0.1%
			GDP YoY 잠정치	1분기	1.3%	1.8%
		독일	ZEW 경제전망	5월	-5	4.1
		중국	산업생산 YoY	4월	10.8%	3.9%
			소매판매 YoY	4월	22.0%	10.6%
			고정자산투자(농촌제외) YTD YoY	4월	5.7%	5.1%
			부동산투자 YTD YoY	4월	-5.6%	-5.8%
			발언	클리블랜드 연은		
	실적	홈디포, JD 닷컴, 텐센트				
5월 17일	수	미국	주택착공건수 MoM	4월	-1.7%	-0.8%
		EU	건축허가 MoM	4월	-0.2%	-7.7%
			CPI YoY 확정치	4월	7.0%	6.9%
			근원 CPI YoY 확정치	4월	5.6%	5.7%
		발언	뉴욕 연은, 애틀란타 연은, 시카고 연은			
	실적	시스코, 타겟				
5월 18일	목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전망	5월	-21.1	-31.3
			기존주택매매 MoM	4월	-3.6%	-2.4%
		실적	월마트			
5월 19일	금	독일	PPI YoY	4월	4.8%	7.5%
		발언	뉴욕 연은(5/19), 파월 연준 의장(5/20)			
		회의	G7 정상회담(~21일)			
		파생	미국 옵션만기일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2.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1) 미국 부채한도 협상, 2) 미국과 중국의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 실물 경제지표, 3) 주요 연준 인사들 발언, 4) 1분기 실적 시즌 종료 이후의 추정치 변화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중립 수준의 주가흐름을 보일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440~2,540pt).

12일(금) 미국 증시는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이 이어진 가운데, 5월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소비 심리지표 둔화, 연준 인사의 매파 발언 등으로 하락 마감(S&P500 -0.2%, 나스닥 -0.4%). 이날 발표된 5월 미시간대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는 57.7로 전월(63.5) 및 예상치(63.0)를 큰 폭 하락하는 쇼크를 기록. 반면, 소비자들의 1년 기대인플레이션 4.5%로 전월(4.6%)에 비해 내려왔으나, 컨센(4.4%)를 상회한 가운데, 5년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3.2%로 전월(3.0%) 및 컨센(2.9%)를 모두 상회하는 등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시사한 상황.

이처럼 침체 불안감은 점증함과 동시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는 점이 증시 입장에서 우려 요인인 것은 사실이나, 증시 하방 경직성은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미시간대 지표 상 소비 심리가 둔화된 것은 지역 은행권 위기 이외에도, 부채한도를 둘러싼 정치권의 교착상태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부 디폴트 우려를 유발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과거 부채한도 협상의 패턴을 참고 해봤을 때 이번에도 “막판 진통 끝 타결”로 해결되는 것에 높은 확률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 열린 재무장관이 언급한 시한(X-date)가 6월 1일이 다가올수록 부채한도 관련 불안심리가 수시로 부각될 수 있겠으나, 정치적인 재료들은 증시에 진폭만 키울 뿐 방향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도 상기해볼 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되려 높아졌다는 점은 (소수의견이긴 하지만) 보우만 연준 이사의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히지 않기 때문에,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는 모습. 다만, 지난 4월 CPI와 PPI 상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가 유효함을 확인했으며, 6월 FOMC 전에 4월 PCE(4월말), 5월 CPI(6월 FOMC 직전)에서도 이 추세는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금주 예정된 파월 의장 등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매파 색채를 띄겠지만, 과도한 기대 차단을 위한 원론적인 매파 색채일 뿐 현실점에서 추가 인상을 상정하고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은 시기상조.

주중 시장이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미국의 4월 소매판매(컨센 +0.7%, 3월 -0.6%), 산업생산(컨센 +0.0%, 3월 -0.3%) 등 실물 경제 지표와 경기 가능자 역할을 하는 월마트의 실적이 될 것. 현재 시장은 연준 긴축 종료 여부를 넘어서 긴축 이후의 부작용(침체 등)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상태이기에, 해당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올 시에는 부정적인 주가 반응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

중국의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 실물 경제 지표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전만큼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 등 대중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업종이 중국 경기 호전에도 크게 수혜를 입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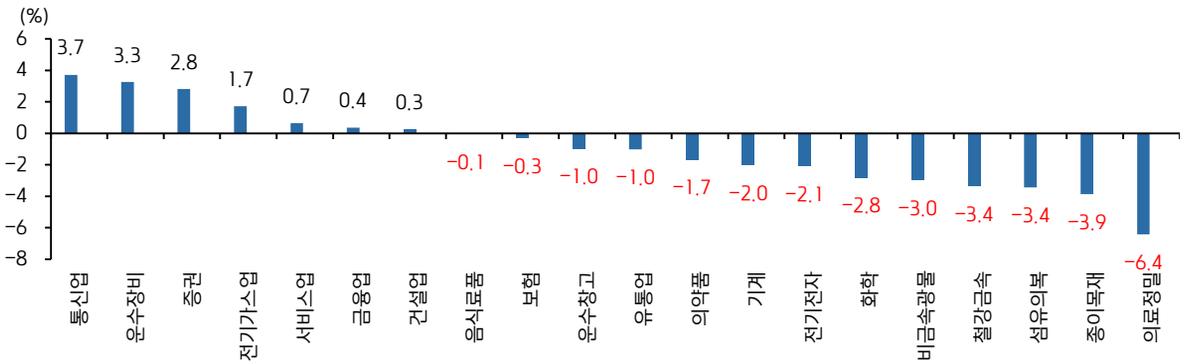
하지만 리오프닝 발 중국 경기 회복은 신흥국 전반에 걸친 수요 회복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등 신흥국 향 외국인 펀드 플로우에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일례로, 5월 10일 기준으로 미국향 주식형 펀드플로우에서는 은행권 위기, 침체 불안 등으로 4주 연속 자금 유출되고 있는 반면(4주 누적, -170억달러), 신흥국향 주식형 펀드플로우에서는 4주 연속 자금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4주 누적 +158억달러, 이중 한국 +3.1억달러). 이런 관점에서 금주 예정된 중국 실물 경제 지표 결과는 국내 외국인 수급에 유의미한 변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증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2,475.42	-0.6	-1.0	-3.0	10.7
대형주	2,459.33	-0.6	-1.0	-2.7	11.6
중형주	2,713.57	-1.1	-1.1	-5.4	4.5
소형주	2,338.42	-0.6	-0.5	-0.5	12.1
코스피 200	323.61	-0.5	-0.8	-2.6	11.2
코스닥	822.43	-0.3	-2.7	-7.7	21.1
대형주	1,779.99	0.0	-5.0	-10.7	30.9
중형주	696.42	-0.9	-1.4	-6.6	12.4
소형주	2,865.00	-0.3	-0.2	-3.2	13.9
코스닥 150	1,228.95	-0.2	-4.9	-9.7	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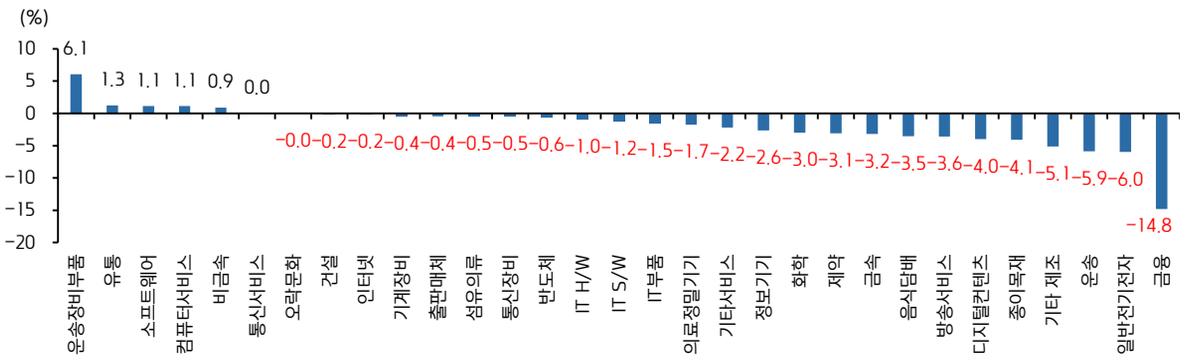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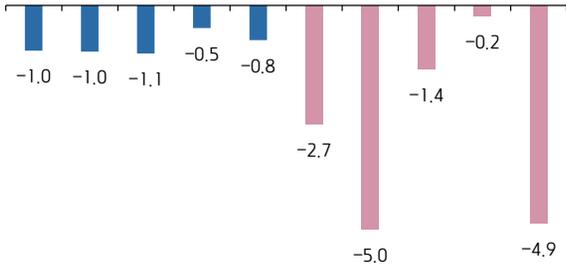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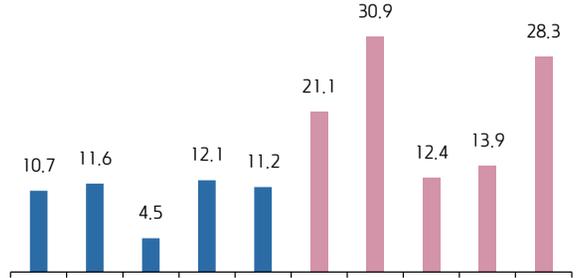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코스피 코스피 코스피 코스피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 코스닥 코스닥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200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150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코스피 코스피 코스피 코스피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 코스닥 코스닥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200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150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시가총액 상위 기업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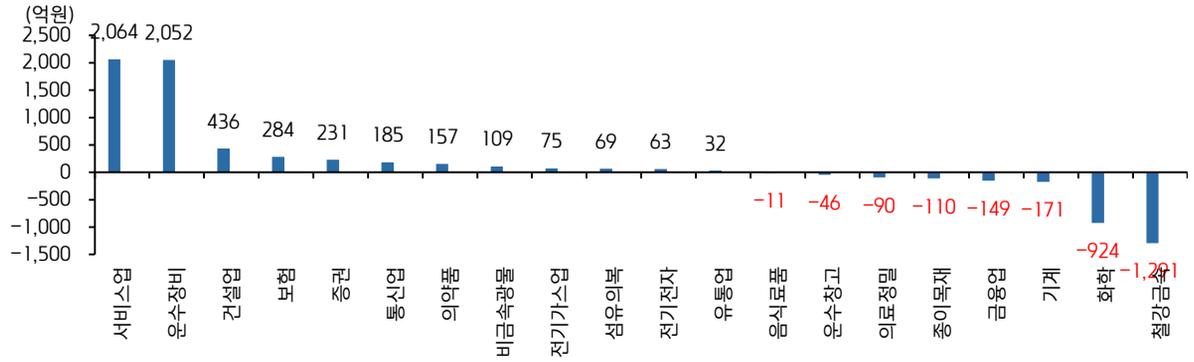
순위	종목코드	코스피	시가총액(억원)	5일 평균 거래대금(억원)	주간수익률(%)
1	005930	삼성전자	3,826,631	6,775	-1.5
2	373220	LG 에너지솔루션	1,279,980	1,107	-3.0
3	000660	SK 하이닉스	634,818	2,194	-1.7
4	207940	삼성바이오로직스	555,869	338	-2.0
5	051910	LG 화학	485,675	1,479	-5.9
6	006400	삼성 SDI	457,284	1,180	-2.8
7	005380	현대차	441,043	1,752	4.7
8	000270	기아	362,395	1,514	4.1
9	035420	NAVER	350,245	2,570	8.9
10	005490	POSCO 홀딩스	307,416	3,255	-4.1

순위	종목코드	코스닥	시가총액(억원)	5일 평균 거래대금(억원)	주간수익률(%)
1	247540	에코프로비엠	222,498	3,559	-9.0
2	086520	에코프로	144,855	7,527	-20.4
3	091990	셀트리온헬스케어	119,560	691	2.8
4	066970	엘앤에프	86,264	1,679	-5.9
5	028300	HLB	42,912	307	0.0
6	035900	JYP Ent.	33,474	384	-0.6
7	293490	카카오게임즈	32,441	97	-1.4
8	068760	셀트리온제약	32,304	157	-0.5
9	048260	오스템플란트	28,972	3	-0.4
10	263750	풀어비스	27,495	116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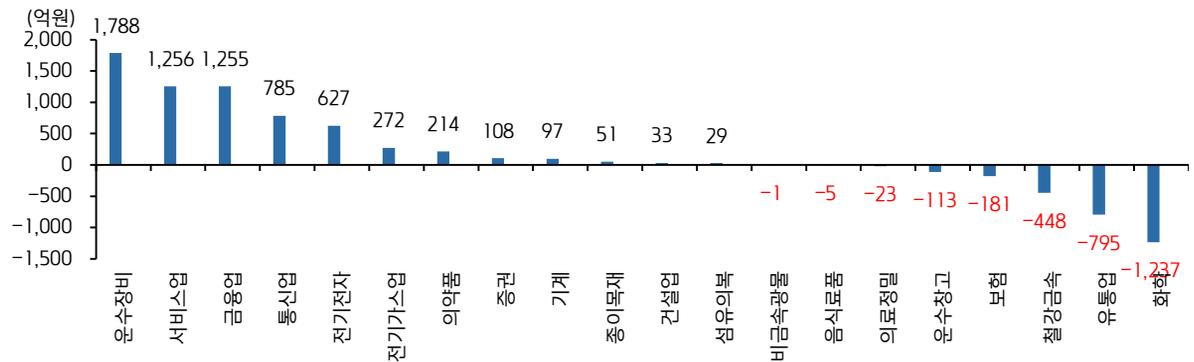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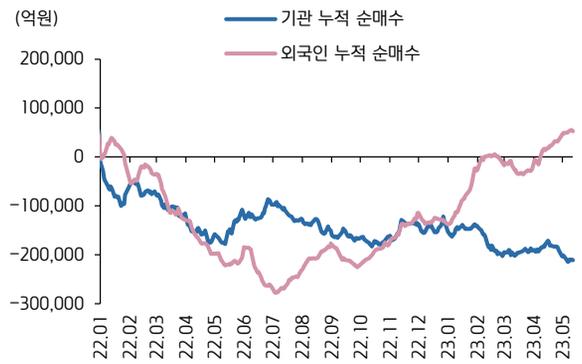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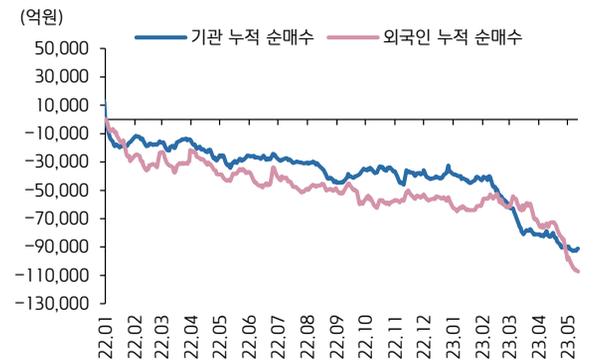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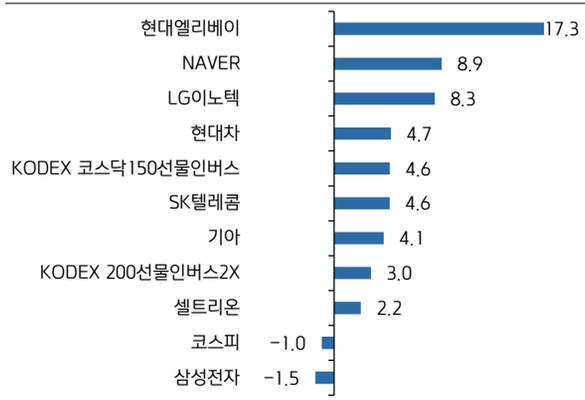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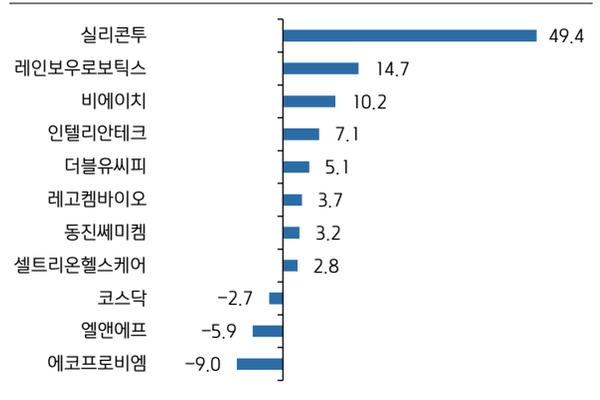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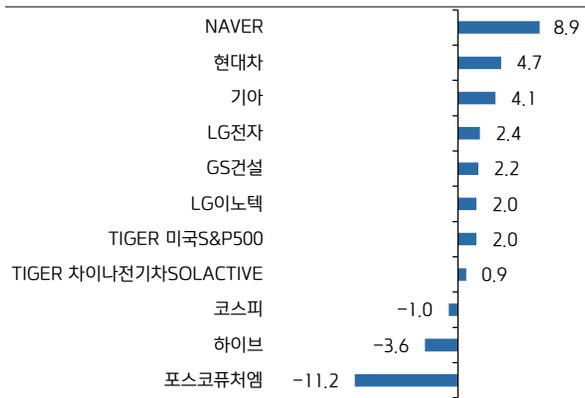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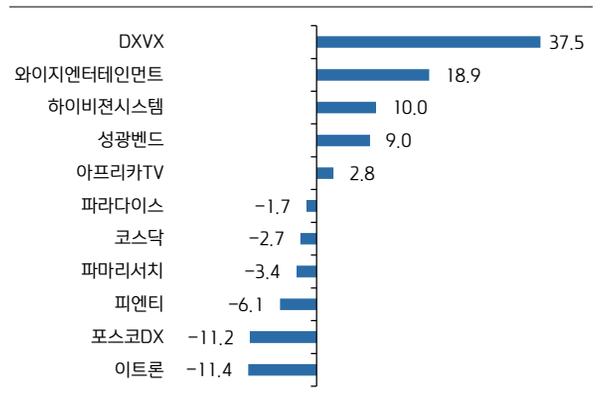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외국인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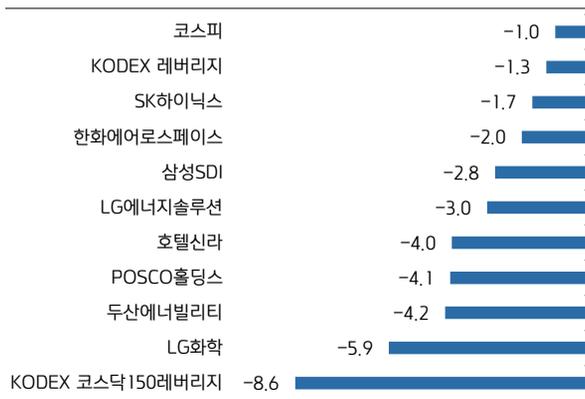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외국인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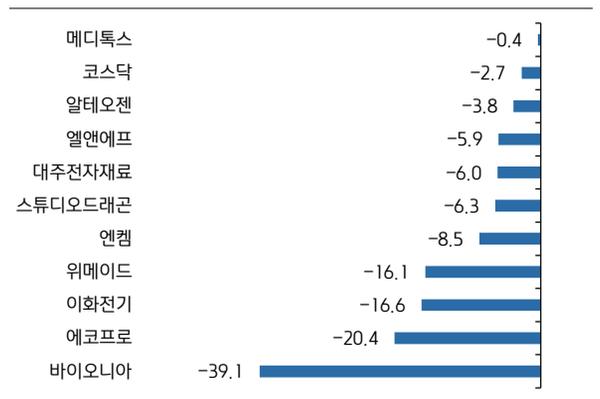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개인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개인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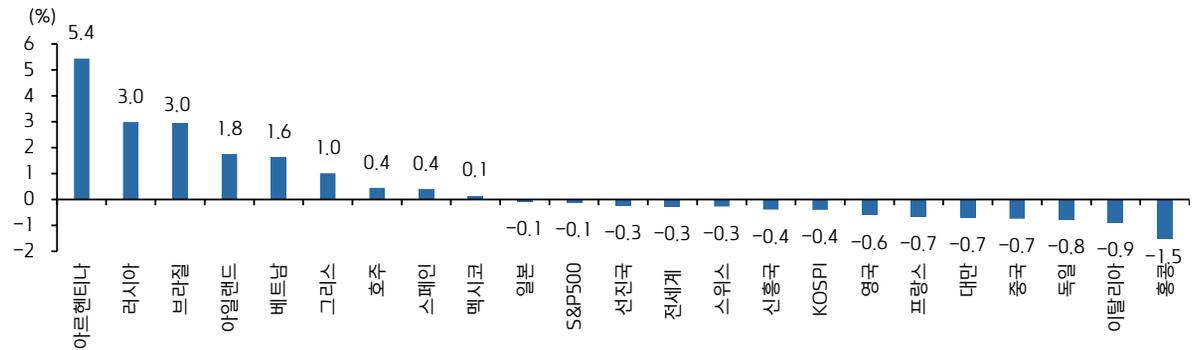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용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용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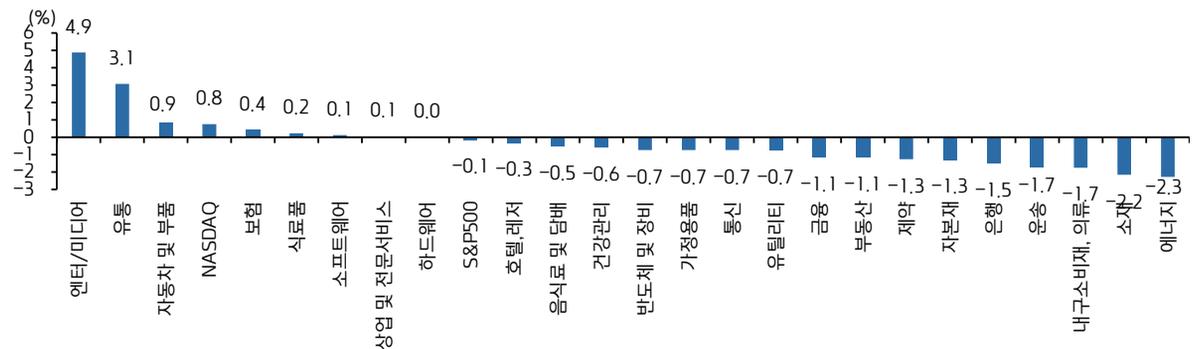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